

2023년 북한 시장 물가·환율의 추세 및 시장정책 동향

정승호 |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학부 부교수 | shjung@inu.ac.kr

I. 머리말

2023년 북한 시장물가의 특징은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에서의 점진적 회복으로 요약할 수 있다. 2020년 1월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조치로 국경이 폐쇄되면서 지역 간 이동이 통제되고, 무역도 사실상 중단되면서 북한 시장은 부정적 충격을 받게 된다. 임송·문승현(2023)이 70여개 물품의 가격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시장물가지수에 의하면, 국경봉쇄 이후 기간인 2020~22년간 연평균 물가상승률은 11.5%로 이전 7년 평균인 5.8%에 비해 2배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한국은행의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치에 의하면 국경봉쇄 기간 동안 북한은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여, 물가는 상승하는 반면, 소득이 감소하는 경제위기 상황이 지속되었다.

2023년은 경제위기를 야기했던 문제들이 다소 완화되면서 시장물가도 안정화되는 추세가 나타났다. 2022년 8월 방역전쟁에서의 승리를 선언하면서 방역단계를 정상 수준으로 낮추었고, 한 달 후인 9월부터 북중 간 화물열차 운행이 재개되었다. 2023년 북중 무역액은 국경봉쇄 이전인 2019년 대비 83%(수입액 78%)까지 회복되었다. 그러나 경제 전반에서 국가통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관찰되고 있다. 특히 대외무역과 양곡유통 부문에서 분권화에 반대되는 재집권화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고(임수호, 2021; 양문수, 2022), 일부 언론에서는 2023년 말부터 곡물 국정가격과 국정임금이 인상되는 조치가 시행되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본 연구는 이처럼 북한 시장과 관련되어 다양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물가 데이터와 북한 당국의 발표, 법령 등을 참고하여 현재 북한 시장 상황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전망하고자 한다. 국경봉쇄의 영향과 그 전후 추세를 비교하기 위해 2019~23년까지 5년간 월별 물가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대상은 곡물, 유류, 환율 등 주요 품목이며, KDI가 Daily NK로부터 구매한 시장물가 월별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밀가루, 설탕, 콩기름 등 수입 식료품의 가격 추이는 분기별로 제공되는 농촌경제연구원의 ‘북한농업동향’의 자료를 이용하였다.¹⁾ 또한 국제 가격과의 비교를 위해, World bank, CEIC, 석유공사, 농어촌공사 등의 가격자료도 함께 참조하였다. 임송·문승현(2023)은 2013년부터 쌀가격과 물가지수와 의 상관관계가 약해지고 있어, 일부 품목만으로 물가 전반을 파악할 경우 북한경제 상황을 잘못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분석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반적인 물가 상황과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미리 밝힌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II장에서는 품목별 시장물가와 시장환율의 변동 추세를 파악하고, 북한 내 지역 간 비교, 국제 가격 및 중국 가격과의 비교를 통해 특징을 파악한다. III장에서는 시장과 관련된 북한 당국의 최근 정책 변화를 살펴보고, 함의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IV장에서는 전체 내용을 요약하고, 향후 방향을 전망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한다.

II. 시장물가와 환율 추세

1. 식료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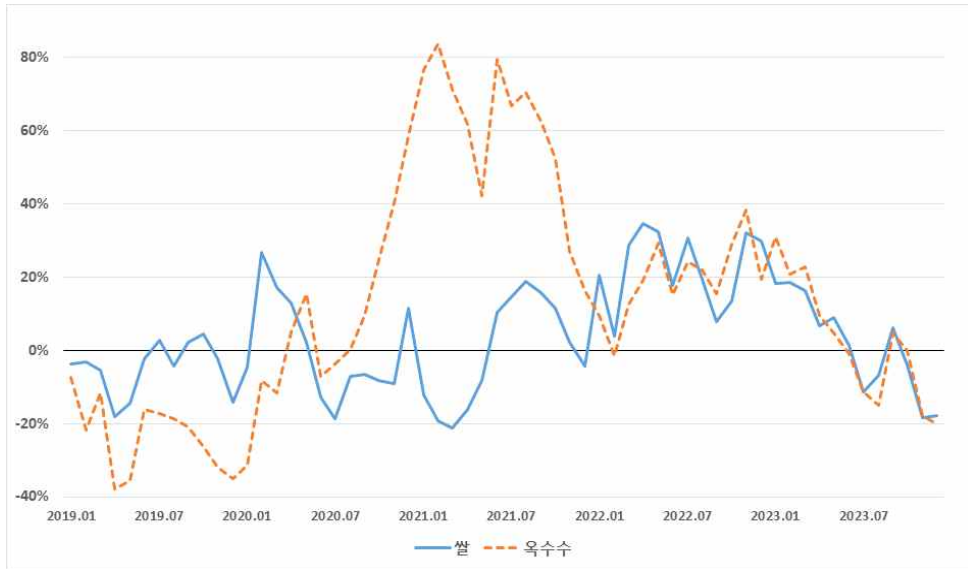
가. 곡물가격

[그림 1]은 2019년 이후 북한의 주요 곡물인 쌀과 옥수수 가격의 변동률을 보여주고 있다. 쌀가격의 경우 국경이 봉쇄된 2020~21년 동안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2022년에는 20%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2023년부터는 상승폭이 둔화하여 하락 추세로 반전하였다. 옥수수는 2021년 상승폭이 80%를 넘겼고, 2022년 이후에는 쌀과 비슷한 상승률 추세를 나타냈다.

1) 북한 시장물가조사의 자세한 방법은 경승호(2023)를 참고하라.

[그림 1] 쌀, 옥수수 시장가격의 전년 동기 대비 변동률(2019~23)

(단위: %)



자료: Daily NK 물가지료.

2021년, 2022년의 급격한 가격상승은 식량생산이 부진한 데다, 국경봉쇄로 대중 곡물수입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곡물 수급 여건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2023년은 양호한 기상여건으로 국내 생산량이 늘어났고, 대중수입까지 더해지면서 곡물 가격이 다시 안정화되었다.

<표 1> 북한의 식량 생산량 및 수입량 추이(2019~23)

(단위: 천톤, %)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쌀	국내생산량	2,236	2,021	2,156	2,074	2,110
	대중수입량	161.6	1.3	0	74.9	164.3
	합계	2,398	2,022	2,156	2,149	2,274
	증감률(%)		-15.7	6.6	-0.3	5.8
옥수수	국내생산량	1,521	1,513	1,587	1,566	1,700
	대중수입량	22.9	1.2	0	0	6.8
	합계	1,544	1,514	1,587	1,566	1,707
	증감률(%)		-1.9	4.8	-1.3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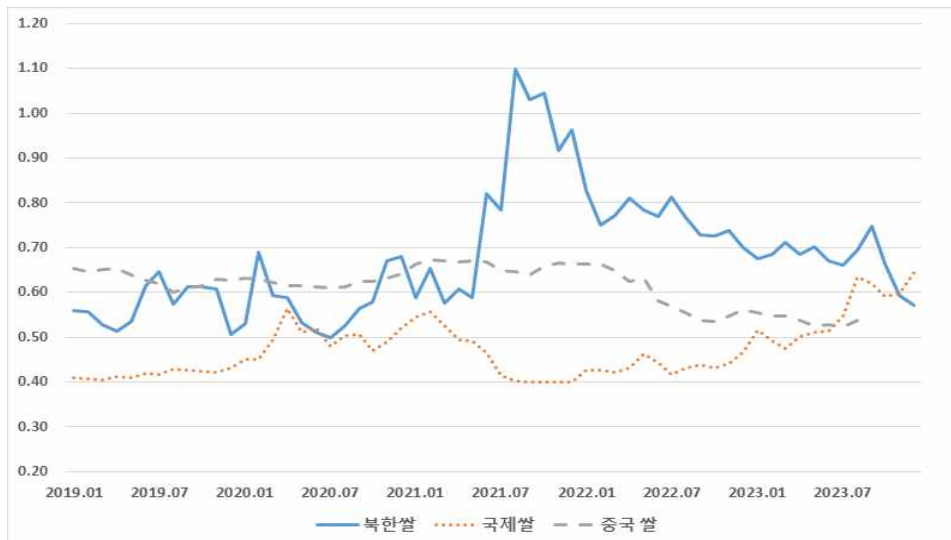
자료: 농촌진흥청; 한국무역협회.

쌀과 옥수수의 가격 변동률은 2023년부터 모두 안정화되는 추세를 나타냈지만, 북한가격을 달러표시 가격으로 전환하여 국제 가격과 비교하면 다른 추세를 보여준다. 우선 국제가격과의 비교를 위해 북한원화 표시 곡물가격에 시장환율을 적용하여 달러 표시 가격으로 전환하였다. 국제 곡물가격은 Worldbank Commodity Price data을 이용하여, 쌀은 태국 가격(5 percent broken milled white rice)을, 옥수수는 미국 가격(No.2 황색종, FOB)을 기준으로 하였고, 중국 가격은 한국농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쌀과 옥수수의 도매 가격을 참고하였다. 중국 가격 역시 위안/달러 환율을 적용하여 위안표시 가격을 달러표시 가격으로 전환하였다.

[그림 2], [그림 3]은 각각 북한 쌀과 옥수수의 시장가격을 국제 가격과 비교하여 보여준다. 국경이 봉쇄된 이후 2020년까지도 북한의 곡물가격은 국제 가격과 중국의 도매 가격 사이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21년 북한원화의 대미 환율이 비정상적으로 절상되면서 쌀, 옥수수의 달러표시 가격이 중국 가격보다 높게 형성된다. 2021년 하반기 이후 대미 환율이 정상 수준으로 되돌아가면서 달러표시 곡물가격도 내림세를 나타낸다. 따라서, 북한 달러표시 곡물가격의 급변동은 내부의 가격변동보다는 환율변동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23년의 경우에는 쌀의 달러 가격은 여전히 중국가격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 있지만, 옥수수의 가격은 통상적인 범위인 국제 가격과 중국 가격 사이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확인된다.

[그림 2] 북한 시장 쌀 가격과 국제 가격과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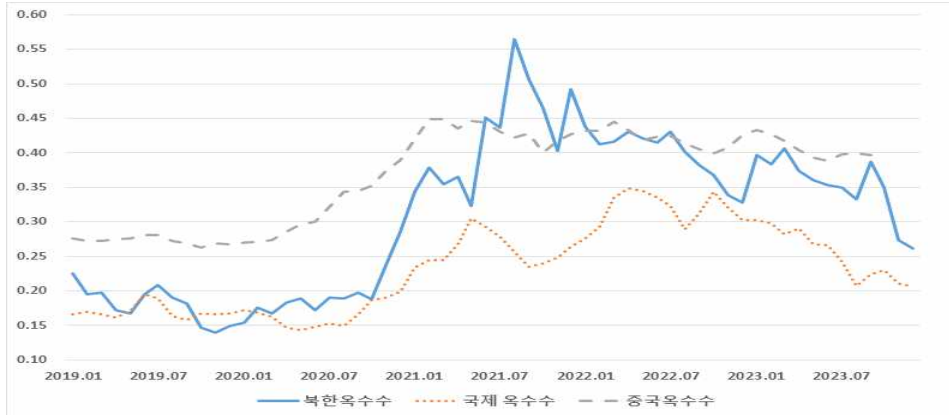
(단위: 미달러/kg)



자료: Daily NK 물가자료; World Bank; 한국농식품유통공사.

[그림 3] 북한 시장 옥수수 가격과 국제 가격과의 비교

(단위: 미달러/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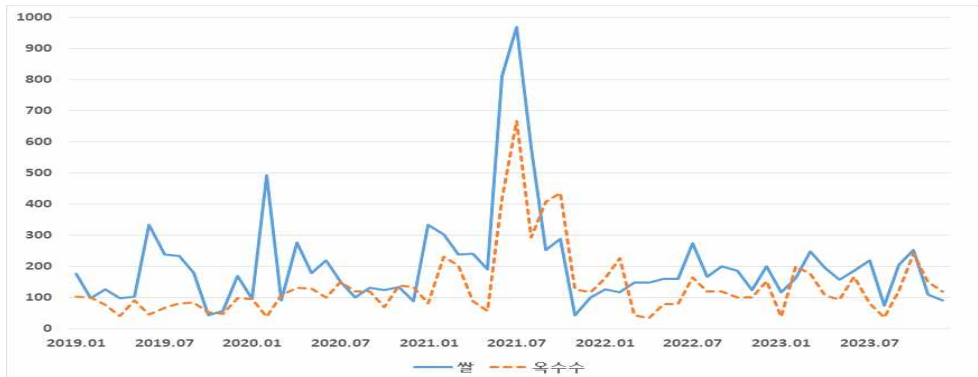


자료: Daily NK 물가자료; World Bank; 한국농식품유통공사.

[그림 4]는 평양, 신의주, 혜산 세 지역 간 가격의 표준편차 추이를 보여준다. 쌀과 옥수수의 추세는 유사하게 나타난다. 2021년 곡물가격 급등기에 지역 간 가격 격차가 크게 확대된 이후, 2022년 이후에는 격차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세 지역 간의 가격을 비교하면, 전 기간에 걸쳐 내륙 국경지역에 위치한 혜산의 가격이 높게 나타나고, 평양과 신의주 사이에는 거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국경봉쇄와 지역 간 이동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평양은 정책적으로 물자 배분이 우선되고, 신의주는 물류 측면에서 유리한 입지인 반면, 혜산은 물자 공급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어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4] 북한의 지역 간 곡물 가격의 표준편차 추이

(단위: 북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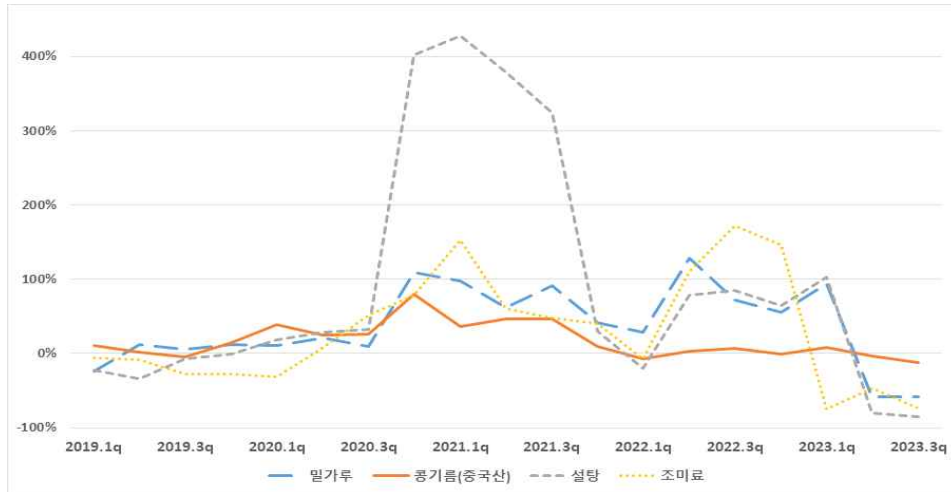
자료: Daily NK 물가자료.

나. 곡물 외 식료품

주로 수입에 의존하는 곡물 외 식료품의 가격 변동 추세는 곡물과 비슷하지만 훨씬 큰 폭으로 나타났다. 국경봉쇄로 무역이 중단된 직후인 2020년 3분기부터 설탕은 무려 400%, 밀가루와 조미료 등도 10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2022년까지 지속되다가 2023년에 대중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빠르게 안정화되었다.

[그림 5] 북한 시장의 주요 곡물외 식료품의 전년 동기 대비 변동률

(단위: %)



자료: 농촌경제연구원, 「북한농업동향」, 각호.

2. 유류제품

휘발유, 경유 등 유류제품은 북한 내에서도 원화보다는 달러나 위안화 등 외화로 거래되기 때문에 달러표시 가격을 기준으로 추세를 살펴보기로 한다. 북한 유류가격은 곡물과 마찬가지로 시장환율을 적용하여 달러표시 가격으로 전환하였다. 국제 가격은 석유공사에서 제공하는 석유제품 가격정보를 기준으로 하였고, 중국 가격은 CEIC 데이터의 중국 국내 시장가격을 참조하였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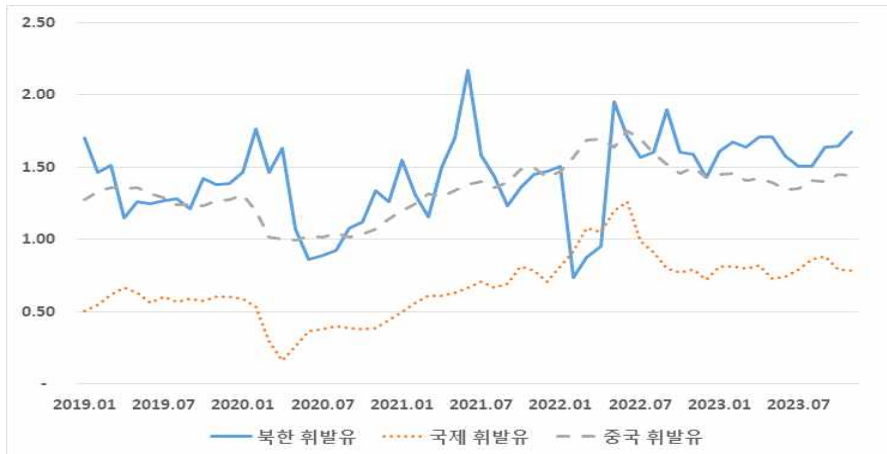
[그림 6],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의 휘발유와 디젤 가격은 추세적으로 중국 가격을 따라가는 것이 확인된다. 다만, 중국 가격에 비해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는데, 이는

²⁾ 석유공사에서 제공하는 국제 유가는 싱가포르에서 거래된 석유제품 가격 추정값으로 휘발유(92RON), 디젤(0.05%) 기준이다. CEIC의 중국 가격의 경우 휘발유는 Gasoline, No 92: Without Lead를, 디젤은 No 0을 기준으로 하였다.

북한의 유류 소비가 강한 계절성(seasonality)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체로 1분기와 3분기에 상승 추세가 반복되는 것은 봄 파종기와 가을걷이를 전후하여 농기계 가동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림 6] 북한 휘발유의 시장가격과 국제 가격과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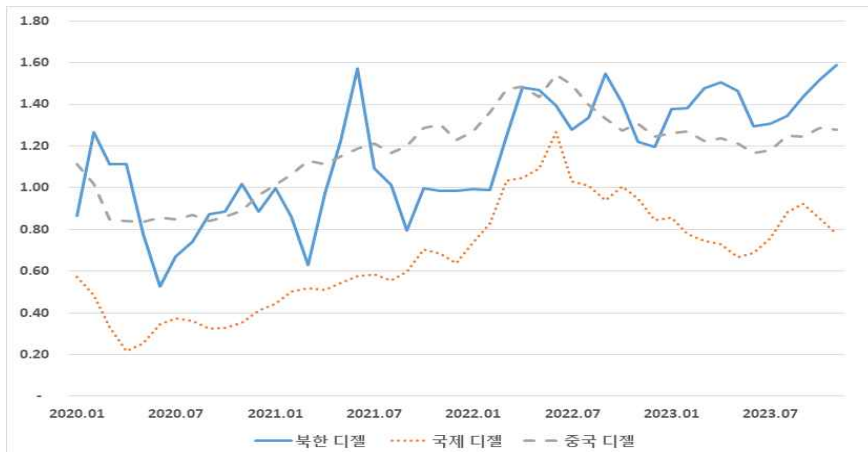
(단위: 미달러/kg)



자료: Daily NK 물가자료; CEIC; 석유공사.

[그림 7] 북한 디젤의 시장가격과 국제가격과의 비교

(단위: 미달러/kg)



자료: Daily NK 물가자료; CEIC; 석유공사.

UN 안보리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정제유 가격이 중국 가격의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은 공식, 비공식 경로를 통해 충분한 양의 유류제품이 북한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7년 12월에 채택된 UNSCR 2397호를 통해 유류제품의 대북 수출량은 50만배럴로 제한되었다. 이는 제재 직전 2016년 정제유 수입량인 215만배럴(28만톤)의 약 1/4 정도밖에 안 되는 물량으로, 제재가 실효적으로 집행된다면 정제유 가격 급등이 예상되었다. 그러나 UN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연례 보고서는 상한 보다 훨씬 넘는 물량이 선박 환적 등 비공식 경로를 통해 북한에 공급된 것으로 추정한다.³⁾ 패널 보고서의 추정 물량을 연간 물량으로 환산하면, 2021~22년 중 도입물량은 200만배럴 이하였으나, 2023년에는 250만배럴 이상이 도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러우 전쟁 장기화로 북러 간의 경제협력이 심화된다면 러시아를 통한 공급 물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경우 북한의 정제유 가격은 향후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

〈표 2〉 북한의 비공식 정제유 도입 물량 추정치(2018~23년)

(단위: 천배럴)

연 도	기간	보고서 추정 물량	연간 환산 물량 ¹⁾
2019	1~10월	3,894	4,673
2020	1~9월	4,410	5,880
2021	1~9월	525	700
2022	1~8월	792	1,189
2023	1~4월	638	2,554

주: 1) 연중 보고되지 않은 기간의 월평균 수출 물량이 보고된 기간의 월평균 수출 물량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환산한 것임.

자료: UN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각 연도 보고서(S/2019/171, S/2020/151, S/2021/211, S/2022/132, S/2023/656)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3. 시장환율

2020년 국경봉쇄 이후 북한 물가에서 나타난 가장 특징적인 현상은 환율의 하락(북한원화 강세)이다. 북한 원화의 환율은 2013년 이후 달러당 8,000원 선에서 안정된 이후, 국경봉쇄 이전까지 7년 넘는 기간 동안 사실상 고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2020년 11월에 6,000원대로 낮아진 데 이어, 2021년 중순 이후에는 5,000원대까지 하락하였다. 그러나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같은 기간 위안화 환율은 달러에 비해 더 큰 하락폭을 보였고, 이에 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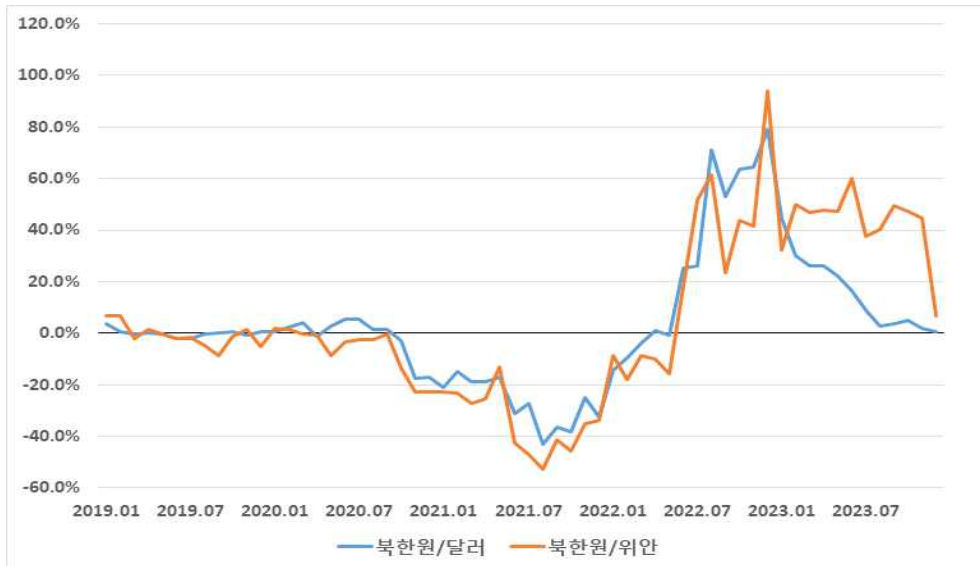
3) 보고서에서는 해상환적을 통한 정제유 공급 물량과 관련해 ‘우조선의 적재한도 대비 30%, 60%, 90% 적재’라는 세 가지 가정을 기준으로 추정치를 제공한다. 여기에서는 최대치인 90%를 가정한 경우의 물량을 제시하는데, 이는 고정 수송비용을 고려하면 최대한의 물량을 적재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라는 기존 연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문헌을 김석진(2021), 김규철(2022)을 참고하라.

북한 시장에서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는 국제 시세에 비해 더 낮게 형성되었다. 이에 대해 정승호(2022)는 국경봉쇄 이후 무역 중단으로 외화 수요는 감소하였지만, 당국의 외화 사용 금지조치로 인해 북한 원화 수요는 증가하였다고 설명하였다.

2022년 하반기에 무역이 재개되면서 달러, 위안화 환율이 모두 급격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흥미로운 부분은 2023년은 국경봉쇄 기간과 정반대로 위안화의 상승률이 달러보다 높다는 사실이다. 이는 북중무역이 2019년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위안화 수요가 더 많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림 8] 북한 시장의 달러, 위안 환율 전년 동월 대비 변동률(2019~23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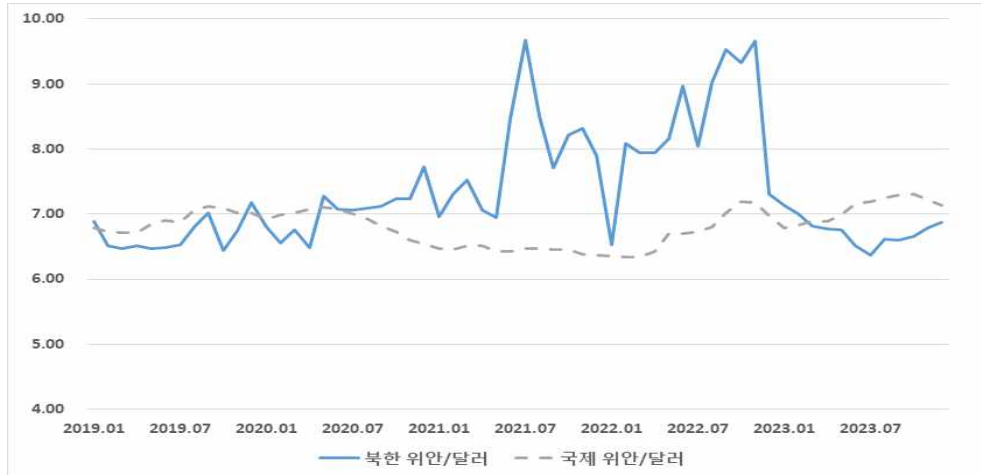


자료: Daily NK 물가자료.

국제 비교를 위해, 북한의 달러와 위안 환율 데이터를 이용하여 위안/달러의 재정환율을 계산하고, 이를 Fred data의 월평균 현물환율(Chinese Yuan Renminbi to U.S. Dollar Spot Exchange Rate, Monthly, Not Seasonally Adjusted)과 비교하였다.

2020년 하반기부터 2022년 중반까지 북한 환율은 국제시세의 추세에서 크게 이탈하여 달러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그러나 2022년 중반 무역이 재개되면서 북한의 재정환율이 국제시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복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9] 북한시장의 위안/달러 환율과 국제시세와의 비교(2019~23년)



자료: Daily NK 물가자료, Fred Economic Data.

III. 북한 시장 관련 정책 변화

2021년 제8차 당대회 당시 김정은 위원장은 총화보고에서 ‘상업봉사활동 전반에서 국가의 주도적 역할, 조절 통제력을 회복’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이후 북한 당국의 시장에 대한 통제가 강화(재집권화)되는 조치들이 관찰되고 있다. 가장 많이 언급된 부문은 대외무역과 곡물 유통이다. 우선 무역과 관련해서는 2022년 2월 무역법이 개정되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모든 무역활동을 국가경제의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에서 확대 발전시키고 무역사업에 대한 중앙집권적, 통일적 지도와 통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항들이 보충됐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같은 해 2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김덕훈 내각 총리는 “대외경제 부문에서 국가의 유일적 무역제도를 환원 복귀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라는 언급까지 하였다. ‘국가 유일적 무역체제’란 무역을 ‘국가 독점 원칙에 의해 수행하는 것으로, 무역관리에 있어 ‘노동당-무역성-국영무역회사’의 계통으로 중앙집권적 지시와 통제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양문수, 2008). 이러한 무역체제는 이미 1970년대 말부터 무역 분권화가 확대되면서 완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김정은 정권 초기 경제개혁조치에도 무역 영업허가를 받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가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무역 분권화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이석기 외, 2018). 이미 내각 기관, 지방행정기관,

당, 군, 특수기관 등에서 분권화되었던 무역이 국가독점 방식으로 회귀할 가능성은 현재로서 낮아 보인다. 그러나 시장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소규모, 비공식 무역은 위축되고, 대규모 국영무역회사를 통한 무역이 확대된다면 시장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양곡 유통도 국가 통제가 강화되는 부문이다. 2019년부터 양곡판매소를 시범적으로 도입하였고, 2021년 김정은 위원장이 양곡 수매량을 2019년 수준으로 증가시킬 것(8차 당대회)과 양곡 수매와 식량공급사업 개선(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지시하면서 관련 법령인 ‘양정법’과 ‘농장법’도 개정되었다. 임수호(2023)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배급-시장 병립체제’에서 ‘배급-국영유통 병립체제’로 전환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즉, 그동안의 양곡 유통 과정에서 시장이 하던 역할을 국영공급망인 식량공급소(배급)와 양곡판매소(국영유통)로 대체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2021~22년 사이의 식량가격 폭등이 제도 변화의 배경이 되었다 설명하였다.

이전의 양곡 유통은 식량공급소에서 국정가격으로 배급받는 채널과 시장가격으로 시장에서 구입하는 채널로 크게 구분된다. 그러나 바뀐 제도에서는 시장을 대신하여 양곡판매소에서 시장가격보다 약간 낮은 선에서 곡물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변화되었다. 예를 들어 시장 쌀가격이 5,000원이라면 양곡판매소는 이보다 낮은 4,500원 정도로 판매한다는 것이다. 다만, 양곡판매소는 1인당 구매량이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영공급망에서 시장가격에 준하는 가격으로 판매하는 현상은 최근 법제의 변화에서도 확인된다. 최근 개정된 ‘양정법’, ‘상업법’의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과거 조항에는 없던 ‘판매’라는 용어가 추가되었다 (표 3 참고). 이는 국영공급망이 기존의 국정가격으로 공급하는 기능과 함께 준시장가격으로 판매하는 기능도 추가된 것으로 해석된다.

〈표 3〉 국영공급망 강화와 관련된 최근 법제 변화

	기존	개정
양정법 (22.12 개정)	제1조 (양정법의 사명) 양정법은 양곡 수매와 보관, 가공, 공급, 소비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양정 사업을 발전시키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1조는 (양정법의 사명) 양정법은 양곡 수매와 보관, 가공, 판매 , 소비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양정 사업을 발전시키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상업법 (21.8 개정)	제2조(상품공급원칙) 국가는 상품공급에서 주문제를 바로 실시하여 상품에 대한 수요를 생산에 정확히 맞물리고 생산된 상품을 제때에 수요자에게 공급하도록 한다.	제3조 (상품공급, 판매원칙) 국가는 상품공급과 판매에서 주문제를 바로 실시하여 상품에 대한 수요를 상품의 생산 및 수입에 정확히 맞물리고 상품을 제때에 수요자에게 공급, 판매 하도록 한다.

자료: 「NK경제」, 「베일 벗은 북한의 양정법 개정안...‘판매’ 반영, 벌칙 조항 구체화」, 2023. 7. 14; 법무부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주목을 끄는 기사가 발표되었다. RFA와 아시아프레스 보도에 의하면 직장에서 쌀의 배급가격(국정가격)이 46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되고 월급도 2,300원에서 5만~10만원으로 인상되었다고 한다.⁴⁾ 보도 내용의 진위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만일 사실이라면 국정가격과 임금이 인상되었던 2002년 7.1 조치와 매우 유사한 가격개혁으로 볼 수 있다. 즉, 국정가격을 시장가격 수준으로 올려 이중가격을 해소하고, 국영공급망을 통한 상품 공급을 정상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7.1 조치는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금 상승으로 인한 통화증발로 인플레이션만 야기하고 실패로 끝났다. 만일 북한 당국이 2002년과 같은 의도로 가격 인상과 국영공급망 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면, 공급(특히 양곡 공급) 확대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시장을 통한 상품 공급 기능은 약화되는 동시에 인플레이션 가능성은 높이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IV. 평가 및 전망

2023년 북한의 시장물가 추세는 국경봉쇄 이전의 정상 수준으로 복귀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대중수출이 2019년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민생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곡물과 수입 식료품 가격의 급등세가 안정되었다. 휘발유, 경유 등 유류제품의 가격도 비공식 경로로 유입이 확대되면서 국제 가격과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국경 개방의 가장 큰 영향을 보여준 것은 시장환율 추세다. 중국과의 무역이 재개되면서 북한 달러위안환율과 국제 시세 간 격차가 대부분 해소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 당국의 정책 변화가 시장의 불안요인으로 등장하였다. 국영유통망을 강화하려는 북한 당국의 여러 조치들은 시장 공급을 감소시켜 시장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만일 당국이 시장보다 낮은 가격으로 국영공급망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할 수 있다면 물가 안정에도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북한은 러시아를 상대로 한 무기와 인력수출에 기대를 걸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러수출 확대는 러우전쟁의 전개 양상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크다. 만일 북한 당국이 충분한 공급 능력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4) 『아시아프레스』, 「파격적인, 10배 넘는 임금인상' 국경기업과 공무원 노임을 일제히 인상」(2024. 1. 5); 『RFA』, 「북, 노동자월급, 식량배급가격 시범적 동시 인상」(2024. 1. 9); 『RFA』, 「북 공장 노동자 월급 40배 인상, 왜?」(2024. 1. 11).

임금과 국정가격 인상 등 가격개혁을 확대한다면, 2002년 이후 상황과 같이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는 위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

참고문헌

- 김규철, 「지속된 코로나19와 북한의 대외무역: 2021년 북한의 대외무역 평가」, 『KDI 북한경제리뷰』, 2022년 1월호, 2021.
- 김석진, 「북한의 제재 회피 실태와 그 경제적 의미」, 『온라인시리즈』, CO 21-12, 통일연구원, 2021. 4. 12.
- 정승호, 「북한시장물가 조사방법 및 개선점」, 『KDI 북한경제리뷰』, 2003.
- 양문수, 「북한 무역의 제도와 실태」, 연구자료 Series No. 2008-01, 한국개발연구원, 2008.
- _____, 「2022년의 북한경제 평가와 2023년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한국개발연구원, 2022년 12월호, 2022.
- 이석기·권태진·민병기·양문수·이동현·임강택·정승호, 「김정은 시대의 북한경제개혁 연구」, 연구보고서 2018-869, 산업연구원, 2018.
- 임송·문승현, 「북한의 시장물가: 2006~2022」, 『BOK 경제연구』, 제2023-13호, 한국은행, 2023.
- 임수호, 「8차 당대회 이후 북한의 경제전략 기조와 시사점」, 『INSS전략보고』, No.115,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1.
- _____, 「배급과 시장의 충돌: 북한 양곡유통제도 변화의 정치경제동학」, 『INSS전략보고』, No.224,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3.
- 정승호, 「2021년 북한의 시장물가와 환율의 추세와 특징」, 『KDI 북한경제리뷰』, 한국개발연구원, 2022년 1월호, 2022.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북한 시장의 품목별 가격」, 『북한농업동향』, 각호.
- _____, 「가격동향」, 『중국농업동향』, 각호.

<웹사이트>

- 법무부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https://www.unilaw.go.kr/>, 접속일: 2024. 1. 10).
- 석유공사(<https://www.petronet.co.kr/v3/index.jsp>, 접속일: 2024. 1. 10).
- CEIC data(<https://www.ceicdata.com/ko/indicators>, 접속일: 2024. 1. 10).
- World Bank commodity Market(<https://www.worldbank.org/en/research/commodity-markets#1> 검색일: 2024. 1. 10).
- FRED Economic Data(<https://fred.stlouisfed.org/series/EXCHUS>, 접속일: 2024. 1. 10).